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1일 월요일 음 9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가 되겠고 낮동안 산지에는 구름이 많아 지겠다. 아침 기온은 15-16℃, 낮 최고 기온은 22-24℃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t 06:43 and sunset at 23:40.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7/22℃.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safety and health-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한일정상회담...李총리·아베 면담 관건

李총리 방일 '대화 물꼬'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각에서는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단 아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황 급진전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참의원 예 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전과 비교해 '유화 제스처'를 보인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할 시점인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는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문화도시 꿈꾼다면 도심 제주목 관아부터 바꾸자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그곳은 말 그대로 광장이었다. 차량이 사라진 그 시간, 검은빛 아스팔트가 쉼터로 변했다.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었고 차도 위엔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붉은 빛 의자가 널브러졌다.

정부의 문화의 달 기념 행사를 유치한 제주시가 이날 도심에 잠시 차 없는 거리로 탈바꿈시켜놓았지만 어디까지나 하루짜리 이벤트였다. 문화가 있는 도시를 꿈꾸며 애써 몇 시

간 주변 도로를 통제해 벌인 일이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그곳으로 차가 달린다.

하지만 문화도시라는 그림은 가까운 곳에서 그릴 수 있을지 모른다. 관덕정에서 몇 걸음 떼어놓으면 가 닿는 제주목 관아 이야기다.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중·개축이 몇 번 이루어지다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훼손되었다. 관덕정만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의 제주목 관아는 건물터를 확인한 뒤 제주 시민들이 기와 5만여 장을 내놓아 2002년 12월에 복원을 마친 시설이다.

뜻있는 이들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지만 그동안 제주 문화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제주목 관아는 시민들과 거리감이 있었다. 건물 내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탐라순력도 체험관과 망경루를 빼면 숲이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복원된 시설마다 놓여있다.

문화재라서 안된다. 안에 설치된 인물 모형이나 재현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얼마 전 문화재를 생활 속에서 가까이 즐기자며 기획한 사업이 제주목 관아에서 열렸다. 그 때 날씨가 궂아 지자 정자 마루로 옮겨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관리 부서에서 손사래를 쳤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강연을 이어가겠다고 해도 거절 당했다.

이번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해 제주목 관아에서 개최된 '문학 불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회 장소로 쓰였다는 우렁당이나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짓는 곳이었다는 굴림당을 놔두고 야외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은 채 문학 콘서트를 꾸려갔다.

마켓을 차릴 때 바닥에 흙이 생길까 천을 깔아놓던 모습을 봤다.

이는 관아와 이웃한 보물 322호 관덕정과 사뭇 차이를 보인다. 근래 지어진 제주목 관아와 달리 관덕정은 수 차례 중수되며 옛 모습을 잃었다고 하나 15세기 이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 관덕정 안에서 입춘굿판 등이 펼쳐졌던 걸 떠올려 보시라.

문화를 자꾸만 일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은 또 있다. 되살려놓은 관아 건물이 도심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관아를 가로질러 제주북초등학교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역시 건물 내부처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방의 벽을 허물고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제주목 관아 일대를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 문화재 부서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열린마당

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법주차 찰칵!



진 승미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사무실에는 "단속시간이 지나서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 됐나, 차를 잠시 세운 것은 맞지만 단속 공무원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단속 했나"는 항의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올해 4월 17일부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시간과 관계없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주변은 단속된다고 설명하는게 일상이 됐다.

먼저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차를 하면 안 된다. 소방차의 분당 물 소모량은 2800ℓ로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4분만에 전량 소모된다. 신속한 소

생명의 문 비상구를 보호하자



김형철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요즘 소방관서는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대책 수립에 여념이 없다. 특히 화재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 피난하고, 심지어는 밖으로 뛰어내려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평상시 사람들은 '내가 있는 건물에 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에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 동선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

무관심은 실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평

소 익숙한 장소라도 비상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다가 피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은 다중이용업소 등을 출입할 때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동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업주는 비상구 및 피난동선 상에 장애물 적치 및 훼손 행위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동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다중이용업소를 출입시 가장 먼저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습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부터, 오늘부터 비상구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 Jeju,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s like kitchen and bathroom renovation.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list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ju Jeongmyo, list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sil Jeongmyo, list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